

추모하며



세 소년 아얄 Ayal, 길라드 Gilad, 나탈리 Naftali 가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살해된 사건으로 인해 마음이 찢어집니다. 지난 3 주 동안은 세속주의자나 종교인이나 상관 없이 연합하여 시편을 공중 낭독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. 이 성경 묵상은 그들을 추모하고, 저희 민족의 메시아에 대한 소망 가운데 쓴 것입니다.

바룩 하바

-아세르 인트레이터



시편 118:26 에는 유대교와 기독교 모두에서 아주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는 짧은 문구가 있습니다. 히브리어로 - **ברוך הבא** 바룩 하바 즉 "...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..." 입니다.

예슈아와 제자들은 “바룩 하바”를 두 번 언급했습니다. 한 번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였고 (마 21:9), 또 한 번은 주님께서 길게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던 끝부분입니다 (마 23:39).

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, 예슈아께서는 스가랴 9:9 의 예언을 이루사 나귀를 타셨습니다. 제자들은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길가에 줄지어 섰습니다. 이 선언은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초청 – 예루살렘에서 왕 메시아로서 당신의 자리를 취하시옵소서 – 이었습니다.

마태복음 21:9

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, “호산나! 다윗의 자손이여, 찬송하리로다!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,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!” 하더라.

두 번째 “바룩 하바”가 사용된 곳은 예슈아께서 다가오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미래 재건을 예언하신 곳에서였습니다. 예슈아께서는 당신을 배척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한편, 그 백성들이 “바룩 하바”를 외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.

마태복음 23:37-39

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... 보라,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... 이제부터 너희는 “찬송하리로다,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!”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.

현대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루바비처 하시딤 Lubavitcher Hassidim 이 그들의 랍비 므나헴 슈니어슨 Menachem Schneerson 이 메시아라고 선포했던 1990 년대에 이 구절이 유명해졌습니다. 슈니어슨은 1994 년 6 월 (지난 달로 20 년 전)에 별세했습니다. 그의 추종자들은 계속 그의 사진과 이 문구 – 오는 자가 복되도다, 왕 메시아 – 가 든 포스터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.

그들은 시편 118 편을, 복음서의 이해와 똑같이, 메시아를 일컫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(그들의 "후보자"를 메시아로 바꿔놓은 것만 빼고).

유대교인들은 성경 절기 때 시편을 읽습니다. 이스라엘에서는 위기 시나 특별히 필요할 때도 시편을 크게 낭독합니다. 그러므로 시편 118 편의 공중 낭독은 미래의 국가적 위기 때 능히 있음직한 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.

마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동안 예수아께서 시편 118 편의 또 다른 구절 - "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" - 을 언급하십니다 (마 21:42). 시편 118 편은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환영 받으며 들어올 사람은 누구든 먼저 "건축자들" (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)에게서 버림받은 "돌"과 같이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절당하고 그 다음에 환영 받는 것입니다.

예수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은 단지 부분적 성취였습니다. 주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또 다른 날이 있을 것입니다. 이것은 국가적 위기 때 성경 절기에 "바룩 하바"를 외치며 시편을 공중 낭독할 때 일어날 것 같습니다.

네타넬 하우스 소식

라헬 & 길라드 네타넬 Rachel & Gilad Netanel



저희는 최근 샤밭 저녁 식사에 친구들 몇 명을 초대했습니다. 그 중 한 명 (음악 교사인 H)이 자신의 학교에서 주최하는 음악 페스티벌에 저희를 초대했습니다. 저희는 그 페스티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거기서 그녀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. 이 일이 있던 직후에 저희는 샤부올 동안 그들을 다시 방문했습니다.

그녀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“메시아닉 신자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뭘 합니까?” 물으셨습니다. 저는 저희가 타나흐 (구약 성경)의 유대교의 뿌리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“미쯔볼 (계명)과 안식일은 어떻습니까?” 저는 저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**“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... 곧 내가 나의 법(토라)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...” (렘 31: 31, 33)**라고 말한 것처럼 타나흐에 따라 계명도 지킨다고 말했습니다.

그녀의 오빠 (전에 정통 유대교 예쉬바에 다녔던)는 “당신들은 어떻게 예슈아가 메시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?”라고 물었습니다. 이 시점에서 성경의 예언들을 짚어가며 설명하자 그는 우리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. 저희의 대화는 세 시간 동안이나 계속 되었습니다. 계속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, 저희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.

야드 하쉬모나에 대한 레즈비언의 공격

아엘렐 로넨 Ayellet Ronen 비서실장



2년 전 저희 부지를 "결혼식"을 하도록 빌려주지 않는다고 레즈비언 커플에게서 고소를 당한 후 저희 키부츠는 차질을 많이 겪었습니다. 최근에는 저희 향소가 기각되었고, 그때부터 저희에 대해 전에 없던 새로운 공격이 이메일, 인터넷, 와이넷 Ynet, 마코 Mako 및 SNS 를 통해 들어왔습니다.

다른 동성 연애자들이 이곳에서 행사를 열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, 이것은 결과적으로 저희 시설을 문 닫고 직원들을 해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.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 시설을 더욱 분명하게 종교적 단체로 다시 규정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종교적 단체가 되면 동성애 행사에 대하여 법적 입장을 바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보다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좋아하고 비영리 기관으로서 모금을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, 전에는 그렇게 하기를 주저해왔습니다.

주목할 만큼 흥미로운 일은, 정통 유대교 단체들이 비록 저희가 예슈아를 믿는 것 때문에 저희를 반대하기는 해도, 동성애자들로부터의 공격에 대항하여 저희를 지지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다는 것입니다. 한 랍비는

저에게 “그들이 지금은 당신들을 공격하고 있지만, 그 다음은 우리라는 것을 압니다.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 편을 들고 싶습니다.”라고 말했습니다.

급진주의 무슬림들에 대하여



이 짧은 비디오에서 브리짓트 가브리엘 Brigitte Gabriel 은 “온건파 무슬림들”에 관한 한 무슬림 대학생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. 브리짓트는 무슬림의 80%가 급진주의는 아니지만, 나머지 20%의 급진주의 무슬림은 살인하고 대량 학살하는 것 이상이라고 대답합니다. 평화로운 다수는 상관없습니다! 영어 영상을 보시려면 [여기](#)를 클릭하십시오!